

非OPEC 산유량 추이와 전망

1. 증가세로 反轉된 非OPEC 산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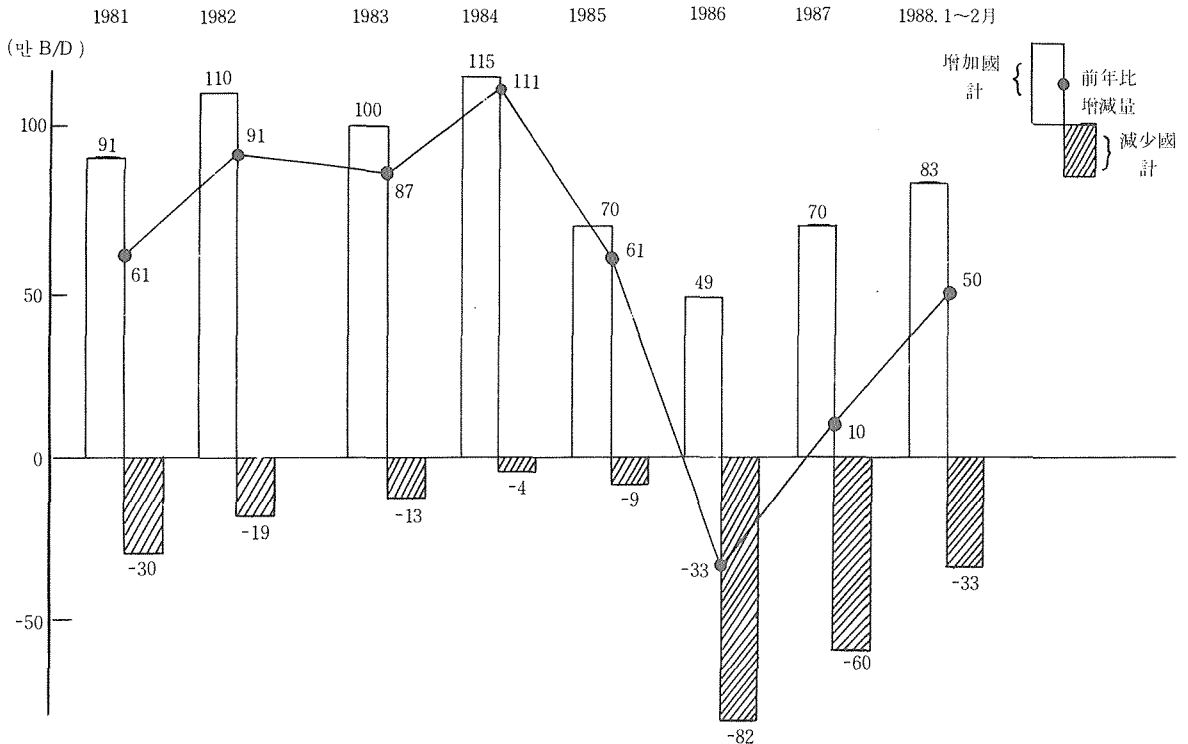
지난 4월 26~27일 처음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非OPEC 합동회의가 非OPEC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 非OPEC 7개국(멕시코, 이집트, 中國, 오만,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앙골라)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OPEC의 동일한 대응을 조건으로 5~6월의 수출량 5%(18.6만 b/d)삭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OPEC는 이 非OPEC제안을 市況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GCC, OPEC 4개국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따라 非OPEC가 요구하고 있는 협조 감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80년초부터 OPEC가 감산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非OPEC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으므로, OPEC의 추가감산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지이다.

(그림 - 1) 자유세계, 非 OPEC의 산유량 추이 (전년대비 증감)



사실 81년 이후의 자유세계, 非OPEC산유량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그림-1), 油價가 급락했던 '86년을 제외 하면 계속 증가만 하였다. 油價 폭락 후 유가약세의 영향으로 '87년의 자유세계, 非OPEC생산량은 전년 대비 10만b/d의 소량증가에 그쳤으나, '88년 1~2월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만b/d나 증가하여 다시 증가기조로 전환되었다.

자유세계, 非OPEC 생산량을 전년(전년동기, 이하 동일) 대비 증가국과 감소국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1)과 같이 증가국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이미 '87년에 70만b/d증가하고 '88년 1~2월에 83만b/d로 증가하여 油價폭락 전년인 '85년의 70만b/d증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한편, 감소국의 동향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로 감소국의 감소량 그 자체가 '86년 82만b/d감소, '87년 60만b/d감소, '88년 1~2월 33만b/d가 감소하여, 油價가 대략 15~16달러 수준에서 하락추세가 멈춤에 따라 소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둘째로 감소국의 내역을 나타낸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의 油價폭락 이후에도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크게 감소시켜온 나라는 美國뿐이며, 기타 諸國에 있어서는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 결국 美國을 제외한 자유세계·非OPEC 제국 전체로서 보면, 현재에도 확실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1〉 자유세계, 非OPEC 주요국의 전년 대비 생산량 추이

(단위 : 만 b/d)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1~2월
協 調 派	앙 골 라	△ 2	△ 1	6	3	2	5	8	14
	브 루 네 이	△ 7	△ 1	0	1	△ 1	2	△ 3	1
	콜 롬 비 아	0	2	1	2	1	13	8	△ 6
	이 집 트	6	5	7	11	6	△ 7	9	△ 3
	말 레 이 지 아	△ 2	4	8	5	1	6	△ 2	6
	멕 시 코	38	44	△ 6	6	△ 2	△ 31	11	6
	노 르 웨 이	△ 3	△ 1	12	9	9	6	15	10
小 計	4	0	5	4	7	6	4	3	
非 協 調 派	小 計	34	52	33	41	23	0	50	31
非 協 調 派	美 國	0	7	1	20	12	△ 29	△ 37	△ 11
	英 國	19	26	22	19	5	1	△ 9	△ 4
	브 라 질	3	4	7	14	8	3	△ 1	2
	印 度	14	7	4	10	9	0	△ 1	1
	北 예 멘	-	-	-	-	-	-	1	13
	기 타	△ 9	△ 5	20	6	4	△ 8	6	18
小 計	小 計	27	39	54	69	38	△ 33	△ 41	19
合 計	(美國제외시)	61	91	87	111	61	△ 33	10	50
		(61)	(84)	(86)	(91)	(49)	(△ 4)	(47)	(61)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81년 이후의 자유세계, 非OPEC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감을 주요 국가별로 본 것이(표-1)이다. 이 表에서 美國을 제외한 자유세계, 非OPEC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감을 油價폭락 전년인 '85년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同年 49만b/d증가, '86년 4만b/d 감소, '87년 47만b/d증가, '88년 1~2월 61만b/d증가로 이에 油價붕괴, 전년도의 증가량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OPEC와의 협조의향을 표명하

고 있는 非OPEC제국의 전년대비 생산량이 油價폭락해 인 '86년의 전년대비 증감제로를 예외로 하고는 착실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2> 자유세계, 非 OPEC생산량 감소국 내역

(단위 : 만 b/d)

1986	1987	1988. 1~2月
美 國 △ 29	美 國 △ 37	美 國 △ 11
		콜롬비아 △ 6
		英 國 △ 4
		기 타 △ 12
		이집트 △ 3
		호 주 △ 3
		페 루 △ 2
		△ 33
멕시코 △ 31	英 國 △ 9	
	기 타 △ 14	브르네이 △ 3
		말레이시아 △ 2
이집트 △ 7	△ 60	
濠 洲 △ 6		
기 타 △ 9	아르헨티나 △ 2	
△ 82		

'86년의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된 자유세계, 非OPEC생산량이 최근에 와서 다시 증가기조로 돌아선 이유는 주로 다음의 네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때 10달러 이하로 하락하였던 油價가 '87년을 통하여 16달러에서 18달러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둘째는, 굴착비용이 석유회사의 경영노력 등으로 낮아지는 한편, 탐사기술도 발전하였다.

셋째는, 많은 국가에서 석유회사의 탐사,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와 법률면에서 새로운 우대조치가 강구되었다.

네째는, 油價폭락 전에 착수되었던 일부 개발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석유가격은 15~18달러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향후의 국제 石油정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는

최근 수입량의 급증으로 그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美國의 산유량과 함께 자유세계의 기타 非OPEC제국의 생산량을 정확히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증가 예상되는 협조과 7개국

자유세계 非OPEC 제국의 향후 생산량 추계는 용이하지는 않으나, 여기에서는 일부 기관이 최근 실시한 조사, 연구를 참조로 하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한다.

먼저 OPEC과의 협조감산을 제창한 나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앙골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하에 있다는 정치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美國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의 카빈더 북방에서의 탐사, 개발활동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량은 90년대 초에 50만b/d의 목표는 하회할 것이나, 42~43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87년 실적은 36만b/d)

콜롬비아는 '87년에 石油개발활동을 전년대비 약 30% 증가시켰다. 이밖에 거대유전인 Cano Limon의 개발진전, 중앙부 트라노스(Central Llanos)지역에서의 파이프라인 부설계획으로 생산량은 '91년에 55만b/d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87년 실적은 39만b/d).

이집트는 대외채무 약 310억달러를 안고 있으며, 서방측 주요 채권국들과의 Rescheduling에 쫓기고 있어, 귀중한 외화 수입원인 石油의 탐사, 개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향후 새로운 油田발견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서부 사막에서의 탐사, 개발활동에 서방측 석유기업의 참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同國의 경우 경제적인 가격정책이 수출증가의 장애가 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 가격에 연동시킨 기동적인 가격설정만 할 수 있다면 생산량은 '89년에도 100만b/d를 초과할 것이다('87년 실적은 90만b/d).

말레이시아는 '87년에 구체적인 OPEC 협조행동으로서 생산량을 전년도 실적인 50만b/d에서 48.5만b/d로 3%정도 감축하였다. 그러나 그후 장래의 생산증대를 목적으로 외국석유기업과의 새로운 생산분배 협정체결 교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對OPEC 협조감

산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생산량은 다시 점증하여 '89년에는 정부목표인 54만b/d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는 잠재 매장량이라는 관점에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량은 90년대 초엽까지 현행 수준('87년 실적 254만b/d)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것이다.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OPEC과의 협조여하에 달려있으나, 생산억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생산량은 '90년대 초엽까지 매년 12~13만b/d정도 증가할 것이다('87년 실적 111만b/d).

오만은 GCC제국의 일원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OPEC이 주장하는 石油정책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 받고 있다고 하는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을 보면 '83년 이후 생산량을 매년 약 5만b/d씩 증가시켜 오고 있다. 결국 향후에도 OPEC, 기타 제국의 생산동향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산에 노력한다는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90년대 초두에는 70만b/d('87년 실적은 56.5만b/d) 정도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OPEC와의 협조를 표명하고 있는 非OPEC 7개국의 생산량은 OPEC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한 향후에도, 전년에 비해 '88년은 30만b/d증가, '89년은 33만b/d증가, '90년 32만b/d증가, '91년 21만b/d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증가 예상되는 비협조파 諸國

다음으로 OPEC과의 협조에 참여하지 않는 非OPEC 산유국의 생산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르헨티나는 '88년말부터 Tierra Del Fuego 근교의 유전에서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탐사, 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油價상한을 현행대비 약 50% 인상하는 외에, 서기 2000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의 에너지개발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따르더라도 겨우 생산량의 감소추세를 멈추게 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량은 향후 90년대 초엽까지 40만b/d에서 앞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된다('87년 실적은 43만b/d)

브라질은 해상유전인 Marlim, Albacora 및 아마존의

Urucu강 유역 유전에서 현저한 생산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9년의 생산목표를 74만b/d('87년 실적 57만b/d)로 높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비용면에서의 제약도 있어 생산량은 '91년까지 70만b/d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룬은 탐사, 개발활동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石油稅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유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향후에도 매년 2만b/d의 감소가 부득이 할 것이다('87년 실적 17만b/d).

콩고는 해상 新유전의 생산개시로 산유량은 '88년 13.5만b/d, '89년 15만b/d로 예상되고 있다('87년 실적은 12만b/d) 생산량은 90년 이후에도 15만b/d 수준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카빈다 지구 근교의 개발진전에 따라서는 상향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印度는 '90년 생산목표인 72만b/d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가 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Ghandar 육상유전, Bombay High해상유전의 개발도 아직 진행중인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생산량의 신장은 '90년대 초엽까지 연 1만b/d정도에 그칠 것이다('87년 실적은 61만 b/d).

베트남은 작년 日本에 처음으로 原油를 수출하였으며, 현재 약 6천b/d 정도로 생산되고 있는 Back Ho 油田의 산유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생산목표인 5만b/d(1990년)는 '91년에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87년 실적 5천b/d).

北예멘은 작년 12월부터 原油수출을 개시하였다('87년 실적은 1만b/d). 현재의 생산량은 알리후 유전에서 18만b/d이나 금년 여름부터 두번째의 생산유전인 아자르에서 2~4만b/d가 추가되어 연말에는 20만b/d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조우프 광구에서의 유전개발이 추진된다면, '90년경에는 정부생산목표인 40만b/d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紅海의 해양광구에서도 탐사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가일층의 증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南예멘은 '86년말에 발견된 샤푸와 油田에서의 생산이 개시되었으나, 현재는 1~2만b/d를 아텐징유 공장에 트럭으로 수송하는 데 그치고 있다('87년 생산실적은 1만b/d). 작년말부터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완성되는 '91년에는 생산량은 10만b/d로 증가하고, 그 후 샤푸와 광구의 개발이 추진되면 50만b/d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상기 이외의 非OPEC 산유국에서 향후 소량이지만, 증산이 예상되는 국가는 파키스탄('87년 실적은 4만b/d→'90년대 초 6만b/d), 수단('87년 실적은 소량→'90년대 초 2~3만b/d), 시리아('87년 실적은 23만b/d→'90년대 초 30만 b/d), 泰國('87년 실적 3만→'90년대 초 5만 b/d), 튀니지('87년 실적 10만b/d→'90년대 초 12만b/d)이다. 이외에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90년대에는 10만 b/d의 생산이 기대된다는 예측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불확실한 요소도 많아 조기 생산개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기타 제국도 포함하여, OPEC 협조국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非OPEC 제국의 전년대비 생산량은 '88년 23만b/d증가, '89년 13만b/d증가, '90년 10만b/d증가, '91년에 18만 b/d가 증가하여,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 감소폭 확대되는 OECD 제국

마지막으로 OECD 제국의 산유량 전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86년 油價폭락 이후 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美國의 48개州의 산유량이 향후 연 2~3%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첫째로 '8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알라스카의 생산량이 향후 어떻게 되느냐이다. 둘째는 수입의존도의 상승에 대하여 포스트, 레이건 정권이 어떠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美國의 생산량은 '87년 830만b/d이후, '88년 820만b/d, '89년 805만b/d, '90년 785만b/d, '91년 760만b/d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eopolitics of Energy, '88년 2월 초〉

〈表-2〉 자유세계, 非OPEC 생산량 전망('88~'91)

(단위 : 만 b/d)

	1987	1988	1989	1990	1991
O P E C 協 調 派 7 개 국					
알 골 라	36	38	40	43	43
콜 롬 비 아	39	42	45	50	55
이 집 트	90	95	100	102	105
말 레 이 지 아	49	51	54	57	57
멕시코	254	256	258	260	260
노 르 웨 이	100	112	125	137	150
오 만	56	60	65	70	70
小 計	624	654	687	719	740
(前年比)	(50)	(30)	(33)	(32)	(21)
非 協 調 派 産 油 國					
아 르 헨 티 나	43	40	40	40	40
브 라 질	57	60	66	70	70
카 메 룬	17	15	13	11	9
콩 고	12	14	15	15	15
인 도	61	63	64	65	65
베 트 남	1	1	2	3	5
北 예 멘	1	18	20	20	30

(단위 : 만 b / d)

	1987	1988	1989	1990	1991
南 예 멘	1	1	2	5	10
파 키 스 탄	4	5	5	6	6
수 단	-	-	-	2	2
시 리 아	23	25	27	28	30
泰 國	3	4	4	5	5
튀 니 지	10	11	12	12	12
기 타	62	61	61	59	60
小 計	295	318	331	341	359
(前年比)	(5)	(23)	(13)	(10)	(18)
O E C D 諸 國					
美 國	831	820	805	785	760
英 國	245	240	232	225	215
濠 洲	55	55	53	50	47
이 탈 리 아	6	10	11	12	12
캐 나 다	152	155	158	160	160
기 타	48	50	50	52	57
小 計	1,337	1,330	1,309	1,284	1,251
(前年比)	(△35)	(△ 7)	(△21)	(△25)	(△33)
합 計	2,256	2,302	2,327	2,344	2,350
(前年比)	(10)	(46)	(25)	(17)	(6)

<자료> Geopolitics of Energy, 1988. 2月號

英國은 탐사, 개발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시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하여 왔으나, '87년에는 마침내 245만b/d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석유분 석가들중 대부분은 英國의 생산량이 지금까지 감소전망을 할 때마다 신규유전에서 생산이 개시되어 감산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늑대소년의 이야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전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향후 '90년대 초엽까지 연평균 7.5만b/d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濠洲는 '88년 1월 1일에 탐사, 개발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石油稅의 인하, 석유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Bass 해협에서의 생산이 금년중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89년 이후 매년 2~3만 b/d 감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7년 실적 55만b/d).

이탈리아는 시실리섬 해상의 Vega 유전에서 생산이

'87년 후반부터 개시되었기 때문에, 금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0만b/d('87년 실적은 6만 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그후에는 1~2만b/d의 미증에 그칠 것이다.

캐나다는 石油가격에 대한 규제완화와 탐사,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우대 조치의 적용으로 Beaufort海의 Amuligak 大油田의 개발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어 금년 1~2월의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2만b/d가 증가한 158만b/d에 달하였다('87년 실적은 152만b/d). 향후 '89, '90년에도 2~3만b/d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타 제국을 포함한 OECD산유량은 주로 美國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88년 7만b/d감소, '89년 21만b/d감소, '90년 25만b/d감소, '91년 33만b/d감소가 예상되어 그 감소폭이 빨라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유세계, 非OPEC제국의 협조파 7개국, 비협조파 小산유국, OECD제국의 향후 산유량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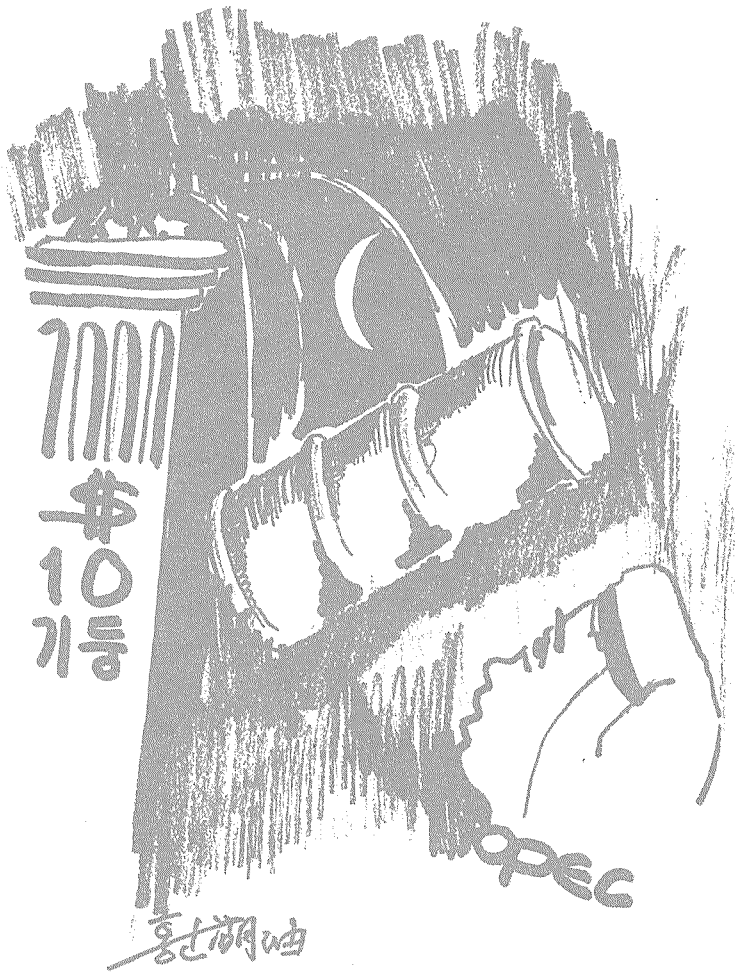
망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조파, 비협조파 제국의 증가로 자유세계, 非OPEC 생산량은 금년 이후 '90년대 초까지 '88년 46만 b/d증가, '89년 25만b/d증가, '90년 17만b/d증가, '91년 6만 b/d 증가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92년 이후의

동향은 향후의 石油가격에 달려있으며, 油價가 현저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유세계, 非OPEC제국의 생산량 급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GCC.OPEC 4개국의 향후 가격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 (JETI)

석유안정

原油價 10弗線 붕괴!



하현달이 유령같구나.